

[현장 & 현장 사람들 5: 재한 몽골 학교 이강애 교장]

몽골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특별한 헌신과 돌봄

대담: 이강애*, 인터뷰: 이민경**, 정리: 정유리***

몽골학교는 한국에 일자리를 찾아 떠난 몽골 이주노동자의 자녀 중,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된 8명의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1999년 12월 서울에서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의 도움을 받아 설립되었다.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운영원칙에 따라 몽골학교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연 관찰학습, 지방 문화재와 산업시설 견학, 수학여행 등과 같은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의 몽골인 차세대 리더를 배출하고, 몽골정부와 대한민국의 교류 확대를 위한 거점학교로서 몽골과 한국을 이어주는 Human Network 및 Human Bridge 형성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학교의 골격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2명의 몽골인 전담 교사와 10여 명의 한국인 교사들은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과 학습 능력에 따라 한국어, 몽골어를 비롯해 한국과 몽골 두 나라 모두의 교육과정에 적합한 과목을 수준별 수업으로 교육하고 있다. 몽골학교는 단순히 한국으로의 무조건적인 동화나 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며, 영어, 수학, 몽골 역사, 몽골 윤리 등을 통해 몽골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수업은 물론 음악, 미술, 과학실험, 태권도, IT 교육 등 세계

* 재한 몽골 학교, mongolschool@hanmail.net

** 대구대, 교육학, minkyung0503@daegu.ac.kr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지리학, jeongyuri2@naver.com

화와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몽골의 리더들을 배출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몽골학교는 초창기 8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외국인학교로 인가받아 지난 2005년 7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지금까지 약 400여 명의 학생들이 몽골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는 160여 명의 학생들이 남아 선생님과 함께 웃고, 즐기며, 꿈꾸며, 공부하고 있다.

작은 관심이 큰 따뜻함으로:

몽골을 변화시킬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이강애: 몽골학교가 2005년도에 학교인가를 받았어요. 저희 옛날 건물이 와보시면 알겠지만 컨테이너 교실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러던 중에 곳곳에 항상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2008



이강애 교장선생님

년도에 서울시 의원 중 청소년과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 분이 우리 학교를 알게 되셨고, 그 분이 “몽골학교 아이들이 정말 너무 열악하다. 학교를 위해서 뭔가 서울시에서 땅이라도 지원해서 학교 건물이라도 새로 지을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울시는 땅값이 좀 비싸잖아요. 저희는 학교 운영하기도 어려운데 학교 지을 생각은 하지도 못했죠. 언젠가는 새로 지어야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엄두도 못 낸 상태였는데 그 분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를 하셨어요. “몽골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여기 몽골학교가 있다. 몽골 정부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만든 학교다. 부모를 따라 온 아이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땅을 마련해주자.”라고요. 그런데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게 2008년도에

요.

이강애: 부지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으로 땅을 강제로 샀어요. 그런데 계속 행정소송에 걸리니까 소송 중인 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서울시가 2012년, 2013년도에 완전히 승소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우리 땅을 산다고 한 것과 별개로 계속 모금을 했죠. 운영을 하면서 계속 비축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바자회도 하고 뭐 또 학교 짓는다는 것. 아이들하고 장신대 운동 그곳도 가서 모금활동도 하고, 정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2013년도에 승소를 해서 2014년도에 드디어 몽골학교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모금을 했다고 해서 이 학교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걸로 종자돈은 생겨서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공사하면서 기도도 많이 했죠. 학교 한 번 지으려면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이곳은 더군다나 야산이고 환경단체에서 들고일어나면 몇 달이 갈지, 몇 년이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주변의 민원도 없었어요. 우리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정말 뜻있는 분들이 십시일반 참여해주셔서 가능했다라고 생각해요.

이강애: 작은 후원자들, 알게 모르게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빛을 지고 완공을 했지만 그 분들 덕분에 그래도 완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2013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4년도 9월 1일에 준공이 되고, 9월 12일에 입주했어요. 지금 5월이니까 여기 온지는 1년도 안 됐죠. 여기 와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해요. 학교를 옮기고 나서는 아이들 숫자가 배로 늘었어요. 여기로 옮길 때 이삿짐 같은 것도 아이들,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들이 다 날랐어요. 또 아이들 책결상은 어떤 후원자분이 다 지원해 주셨어요. 그것도 저희가 다른 일에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 부분까지 신경 쓸까봐 돈을 주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견적을 받아서 교실, 양호실, 과학실 모두 다 그 분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신 분이 또 계세요. 강당 예배당은 우리 교인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았고요. 진짜 기적이예요. 그리고 다음 주 부터는 옥상에 태양광 공사를 할 거예요. 냉·난방을 하다 보니 전기세 감당이 안돼요. 처음에 설계를 했었는데 비용이 만만찮고, 더 많은 빛

으로 지을 수 없어서 하지 못했는데, 마침 이번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안서를 내서 선정이 됐고, 50%를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50%는 모금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나머지 50%에 대한 제안서를 또 쓰고 있어요. 그게 꼭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하여튼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죠.

몽골과 한국을 이어주는 Human Network·Human Bridge로써의 몽골학교

이강애: 우리학교는 몽골에서 알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 가면 이런 몽골학교가 있다.” 그런 소식을 듣고 몽골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몇 살인데 자리가 있나요?”, “뭐가 필요한가요?” 그런 문의가 와요.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홍보적은 없어요. 그런데 얼마전에도 울란바토르 시장님이 왔다갔는데, 그 때 언론 방송 기자들이 한 다섯 명 따라왔거든요. 다섯 언론사에서 우리 학교를 찍어갔고, 그게 방송에 보도되어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런 게 뭐 홍보가 되었겠죠. 몽골학교라는 이런 학교가 있었는데 새로 지었다.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이강애: 방금 전에도 두 명의 아이들이 왔었어요. 한 아이는 몽골에 대학을 가서 교환학생으로 왔다고 인사하러 왔고, 또 한 아이는 여기서 9학년을 졸업하고 몽골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을 바로 안 들어가고 한국에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고, 이 학교 때문에 이 근처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생겨서,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기숙사 맡기기에는 부모님들이 불안하고, 아이가 어리니까 아예 이사 오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여기가 정말 몽골타운처럼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

이강애: 처음 몽골학교가 인가받을 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인가

를 받았어요. 몽골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통합해서 인가해 주거든요. 몽골의 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학교 또한 그렇게 몽골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학교를 짓는데 재정적 지원이나 교사를 보내주는 식의 지원은 아직 없어요. 지금 교과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뀐 교과서를 지원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조금 지원해주기도 하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몽골은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교육부면 교육부, 이렇게 한 곳에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사가 많듯이 몽골에서도 교과서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여기저기, 드문드문, 멀리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과서를 무료로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비, 우리나라로 운송하는 비용 등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전부 우리가 부담해서 가져 와야 하니까요. 그 비용이 교과서 값 못지않아요. 그래서 몽골 교과서를 가지고 몽골 교육을 하는 것이 힘들기도 해요. 지금 저희는 몽골 선생님께는 몽골 교육을 받고, 한국어는 수준별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공부하신 한국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몽골교육은 몽골 선생님께서 몽골 교과서로, 나머지는 한국 선생님들이 음악이나 미술 등을 가르치고 있어요.

부메랑처럼 돌아온 아이들¹

이강애: 9학년 졸업을 하게 되면 반 정도는 몽골에 돌아가서 10학년에 진학하지만 부모님 사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아이 혼자 돌아갈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진학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7월에

1 부메랑은 본래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 사용하던 사냥기구로서, 던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특성을 가진다. 사냥에 성공할 경우 부메랑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사냥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나 돌아온 부메랑을 다시 던질 때는 사냥을 위한 보다 적절한 힘과 방향 조절이 가능해 지고, 이는 사냥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제목은 비록 몇몇 아이들이 한국 고등학교로의 진학 후 다양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몽골학교에 고등과정의 개설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좋은 방향으로의 결과로 다시 몽골학교로 돌아온 아이들을 부메랑으로 표현하였다.

졸업을 해서,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한국 학교로 편입학을 시켰어요. 중학교 3학년 한 학기를 더 다니게 한거예요. 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학만 되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배정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남게된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보냈어요. [...]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에 간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몽골학교와 달리 모든 것을 한국말로 배워야 하고, 과목도 많아지고, 이곳에서는 몽골과목과 한국과목을 함께 배웠지만 한국 고등학교는 공부할 것도 많고, 다 입시위주의 사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몽골로 돌아가곤 했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학교에 꼭 고등과정을 개설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학교로 옮기면서 장소가 넓어지고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개설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9학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10학년으로 올라갔고, 한국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도 고등과정을 개설한 이후에는 이곳에 많이 돌아 왔어요.

지켜주고 싶은 것: 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

이강애: 한 아이가 비자를 받는데 그 쪽 직원이 하도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학교장 추천서나 탄원서, 담임선생님 편지, 친구들 편지 같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만큼 가지고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쓰면서 학교 설명을 좀 했죠. 몽골에 있는 몽골학교와는 다르다. 우리 학교는 한국어를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7시간을 가르쳐요. 한국어 문화이해나 사물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한국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요. 이 아이들은 단순히 몽골교육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세계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왔고, 또 몽골의 유목적인 특성으로 부모를 따라 오다보니 여기서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데 그냥 무작정 한국 학교에 들어갔다가 몽골로 돌아가면 재적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몽골학교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 꼭 비자를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몽골학교를 다른 외국인 학교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

닌가 싶어요. 다른 외국인 학교는 주재원과 같은 형태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을 동안에 학교를 다니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자를 얻으려고 하면 한국까지 와서 한국 학교를 다니지 왜 몽골학교를 다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비자문제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국에 온지 1년이 안 되어서 몽골로 다시 돌아가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비자문제예요. 생각해보면 괜찮고 똑똑한 아이들이 참 많이 왔다 갔어요. 아이들도 계속 여기 다니고 싶은데 비자가 안 나오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오버해서 있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 안 있으려고 해요. 기간 안에 안 되면 그냥 돌아가고 그래요.

이강애: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경우는 한국사람과 결혼한 친언니나 이모에게 의지해서 아이를 보내기도 하는데 계속 여기서 공부하도록 하고 싶어도 부모가 없어 비자를 못 받은 아이가 있고요. 부모가 왔어도 비자가 안 나와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마다 다 상황이 다르죠. 우리가 너무 특수한 경우잖아요. 이런 학교가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보니 공무원들은 항상 전례가 없고 사례가 없으면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 학교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힘이 들어요. 없던 일을 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이 학교로 옮기고 나서는 재정적인 압박이 더 심했어요. 규모가 작을 때는 후원이나 모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기관에 프로포절을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 때도 정말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게 가능했는데 이 규모는 이제 후원으로는 건물유지비 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교육청에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외국인학교 지원법이 없고 근거가 없다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공무원이니 근거가 없는 것을 해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련법을 찾고 있어요.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또 서울시교육청도 모르는 그런 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법에 어떤 단서나 조례만 만들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 해서 계속 법도 찾고 있고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법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도움도 청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관의 편견을 극복하면서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 돌보기

이강애: 그런데 우리를 종교단체로 봐요. 센터같은 것도 사실 몇 번 도전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걸 줄 때는 기존 복지관 그런 곳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복지관은 다문화가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지정받으면서 거기가 또 그런 곳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렇지. 오로지 이 일만 해온 곳이 있는데 저희 학교를 제쳐두고 다른 복지관이나 대학교에 센터 지정을 하니깐요. 근데 그런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광야에서 하늘만 쳐다보도록. 그래서 그런 걸 지정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됐고요. 하지만 항상 죽지는 않게 여기까지 왔어요.

이주아동교육을 넘어 이주네트워크 구축으로

이강애: 이주민들, 결혼이주여성이나 유학생, 그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이죠. 그걸 법무부와 같이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해 왔던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한 클래스만 남겼어요. 한 10명에서 12명 되는데 국적은 8개 국적이예요. 국적이 다 달라요. 선생님이 진짜 잘하세요. 우리랑 함께 일한지는 10년이 넘었어요. 자원봉사로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조금 드리긴 하지만 거의 봉사로 본인이 희생하면서 하시는 거죠. 6월 달에 그분의 글이 소식지에 나갈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이주민들을 가르치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그런 것들을 글로 써달라고 했더니 쓰셨거든요. 그래서 6월 소식지에는 그 분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학교가 평일에는 몽골학교고 그걸 할 때는 다국적 외국인들의 나섬학교가 되는거죠. 그게 끝난 이후 주일날에는 정말 다국적 교회가 되고요. 몽골, 중국, 베트남, 인도, 이란, 필리핀 사람들이 각각 그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주일날은 또 여기가 하나의 세계가 되죠.

이강애: 몽골타운이라고 하는데, 몽골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앙아시아, 거기

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고려인도 있고 해서 생김새는 비슷할지 몰라도 잘 들어보면 다 다른 나라말을 해요.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우리가 동대문 나섬다문화학교라 해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서울시교육청에 제안서를 냈는데 이번에는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도전은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내년쯤에는 할 거예요. 지금은 일단 방과 후 학교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한국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못 가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 아이들 방과 후에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숙제도 같이 해 주고 하는 방과 후 학교를 거기서 시작 할 거거든요. 지금 어른들은 시작을 했어요. 어른들은 굉장히 많이 와서 한국말을 배워요.

이강애: 비전스쿨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꼭 나이 안 드셔도 되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 나가서도 선교하는데 여기 안에서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는데 굳이 그 나라까지 안 가도 여기서 외국인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시니어들이 하라는 거예요. 은퇴자들이 시간도 많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자진해서 막 돈을 조금씩 내서 건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곳과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비전스쿨이 마침 7기, 지금 3년, 4년째네요. 지금 7기니까 일 년에 2기씩, 10주 과정으로 2기씩 하거든요. 이번에 7기가 어제 수료했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어느 나라 사람 누구를 가르치고, 그래서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일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 이정도로 활발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지켜주고 싶은 것: 몽골을 변화시킬 작은 공동체

이강애: 외국인 학교는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아니면 학교 법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법인은 아직 아니고, 대안학교를 하려면 일정한 커

리큘럼을 가져와야 하거든요. 한국 사회도 가르쳐야 하고, 한국어가 아닌 국어를 가르쳐야 하고, 그러려면 또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인가를 내 줘서 대안학교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저희에게는. 일단은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법이 없다보니 지금 찾는 중이죠. 산 넘어 산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 낸다는게,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요. 계속 더 노력해야죠. <끝>

[재한몽골학교 주요 사진]



재한몽골학교 입학식



재한몽골학교 졸업식



재한몽골학교 봄 소풍



재한몽골학교 축구반



몽골교육부차관 방문



재한몽골학교 학생회 임원진